

# 화물연대 광양항 운송 파업 극적 타결

11일만에 노사 운송료 합의  
20피트 컨테이너 6만1000원  
40피트 컨테이너 8만1000원

화물연대의 광양항 운송 파업이 11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양항의 장기 마비와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압박이 서로의 양보를 끌어냈다.

5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한 입주기업 사무실에서 '2020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임금협상 합의안은 광양항에서 배후단지 창고까지 왕복 14km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20피트(6m) 컨테이너(1TEU) 6만1000원, 40피트(12m) 컨테이너(2TEU) 8만1000원이다. 소급 적용은 사측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트레일러 운송료 50%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달 25일부터 광양항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에는 광양항에서 배

후단지 창고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셔틀 트레일러 차량 150여대 운전자들이 소속돼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에 따라 운송료를 5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 기준으로 광양항 셔틀 트레일러 1회 운송료는 9만2000원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4만4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상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운송회사들은 "부산·인천·평택·광양 4개 항만 가운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의 8% 밖에 안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 경영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항만보다 월등히 높은 운송비를 요구하는 것은 광양항의 경쟁력을 저해시킬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들 회사는 입주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했다.

화물연대는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4만4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40피트 컨테이너 5만6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운송회사들은 각각 5만원, 7만원을 제시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비대위와 화물연대는 절충안으로 6만1000원(38.6%)와 8만



지난달 31일 광양시청에서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화물연대의 광양항 점거 파업에 항의하고 있다.

1000원(44.6%)을 도출, 파업 11일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광양항은 총 1만 7600TEU(1일 물동량 1600TEU) 수출입 물류처

리에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광양제철·여수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수출 물량이 광양항을 이용하지 못한 채 부산항으로 이동하면서 물류비용 손실이 확대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정식 연구기관 지위 확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해 항만 및 해운물류분야 R&D(연구개발)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5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외 주요 경쟁 항만의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라 적기 R&D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월10일 연구개발팀을 설립했고, 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KOITA)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공사는 그동안 정부 지원금 없이 연구 과제만 수행하거나 위탁기관, 공동 수행기관의 역할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정식 연구기관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주관기관으로서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스마트 접합등·바지선 리프트 등 2건의 특허 출원으로 기술 상용화 방안을 연구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주관 연구과제에 참여해 제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 YGPA연구개발사업 개방형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건설 신공법, 환경,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과 신기술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과 함께하는 R&D 산업 진흥을 주도하고 있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 진행할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극적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해운항만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모든 광양시민에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준다

시, 추경 304억 편성 22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등도 지원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긴급 재난생활비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선별적 지원이 아닌 모든 지역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최조다.

광양시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 광양시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광양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추경예산에 30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달 31일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5만1372명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 왔다"며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생활비는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카드 단말기를 갖춘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형 마트, 식당 등 광양지역 9000여 곳



광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양시 제공)

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대규모 매출 업소,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광양시의회 추경안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상품권 지급이 시작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을 대리해 일괄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긴급재난생활비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보전(1500개 업체, 17억1000만원) ▲시설개선사업(70개 업체, 3억원) ▲5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305개 점포) 등을 시행했다.

앞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400개 업체, 19억2000만원) ▲소상공인 융자 보증수수료 지원(1500개 업체, 7억2000만원) ▲택시종사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490명, 2억4500만원) ▲가정·일반·공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4·5월 부과분, 1만8507개소, 1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1분기 공모사업 34개 선정 133억 확보

광양시가 올해 3월 말까지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에서 시행한 각종 공모·시상 사업을 통해 13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억원을 더 확보한 것이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가 3월 말까지 공모·시상 사업과제로 발굴한 사업은 총 130개, 2365억원이다. 이 중 34개 사업이 선정돼 133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87개 사업(1934억원)은 공모 심사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추가 선정되는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에 집중된 각종 시상 사업은 지속 관리와 준비강화로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선정된 주요 공모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64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24억원)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12억원) 등이 있다. 또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억원을 확보했다.

최근 들어 중앙부처·전남도 등 사업 추진 방식이 상향식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에 광양시는 공모·시상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시달렸으며, 매 분기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모·시상 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는 지방재원 충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 부서가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정책기조에 맞춰 다양하고 집중 가능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아동수당 지급가구 한시 지원금 1인당 40만원 돌봄 포인트 지급

광양시는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가구에 4월 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는 국비사업으로, 지난달 17일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 지급 아동이며,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 포인트로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포인트는 아동 보호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보육료),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에 포인트로 지급하고,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MMS를 통한 안내와 본인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한다.

또 카드 미보유자는 복지로(사이트, 앱)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주소지로 등기발송된다.

돌봄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남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www.presskorea.or.kr

#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지식이 쌓이는 만큼” “정보가 모이는 만큼” “상식이 커가는 만큼” “교양이 높아진 만큼”

2021년 1월 1일 부터 **신문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시행**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